

■ 상록탑

## 입막음을 자처하는 우리에게



이주연 사진부장

말하고 싶은데 말할 자리가 없는 것만큼 슬픈 일도 없을 것이다. 공간을 허락받지 못한 시위대가 마이크를 놓고, 갈 곳 잃은 전단지까지 비 맞고 울듯이 말이다. 그런데 참 우습게도, 이번 학기 학보 일을 하면서 가장 많이 든 생각은 말할 공간이 있어도 말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학보에는 정기적으로 부장이 글을 쓰는 '상록탑'이 있어, 이번 학기에는 2번 글 쓸 기회가 있었다. 본교 재학생들뿐만 아니라 교직원들까지 읽는 대학신문에 대표로 글을 낸다는 것은 뿌듯한 일이다. 특히 사진기로서 학보에 내 '글'을 싣는 일은 드물고, 취재 내용이 아닌 내 생각, 말을 공유하는 것은 더 드물어 참 신나는 일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글을 쓰는 일은 스트레스로 다가왔다. 자기 역할이 딱히 있는 온점들을 연달아 찍어 줄임표로 만들고, 백스페이스로 텅 빈 공간만 늘려왔다.

주섬주섬 메모장을 펼쳐 글감을 찾는데 아이디어가 영 없는 것은 아니었다. 가벼운 주제만이 아니라, 몸담은 사회에 대해 하고픈 말도 있었다. 기사 맛과 장이 자유롭게 토의할 수 있는 공론장 대신, 핫소셜이들로 가득 찬 시장통이라 화내기도 했다. 별의별 창조 논란을 만드는 가십성 기사들도, 했던 말도 해서 돈 벌려는 이들도, 자극적인 제목과 사진으로 어그로를 끄는 작자들도 답답했다. 질 떨어지는 표현을 그대로 베끼는 글들은 역겨웠다. 또 거기에 동조하는 이들은 뭐람. 할 말이 이렇게 많은데도 글쓰기는 여전히 망설여졌다.

그러다 문득, 어쩌면 내가 입막음을 자처하는 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갑작스러운 선생님의 질문에 꿀 먹은 벙어리처럼 입 닫고, 몇 번이고 읽은 교과서와 눈 맞추던 그 습관이 글쓰기에서도 나오는 건 아닐까. 부족

한 자신을 티 내지 않기 위해 말을 관둔 것이 아닐까. 생각이 거기까지 미치지 나는 글쓰기에 부족해졌다.

입을 닫은 것은 내 의지가 아니었다. 말하고 싶은 욕구는 있었지만, 책임질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과 불안감이 늘 동반됐다. 말을 한다고 해서 해결이 될까, 내 말이 누구에게 영향을 줄 수는 있을까, 누군가 글을 보고 나를 비난하면 어쩌지. 타인의 말을 과신하면서, 자신의 말은 불신하는 태도가 거저에 있었다. 익명이 아니라 이름 석 자가 불기에 해야 하는 말도 가리고, 혹시나 먹칠이 될까 심한 말은 지우고, 먼 미래에 내 글을 보고 누군가 선입견을 품을까 숨기고. 그러다 보니 내 언어를 잃어버렸다. 내 말이 사회의 경종이 되기보다는 소음으로 취급될 것 같아서 입을 닫는 것이 편해졌다.

이는 나만 겪는 일이 아니다. 학보 밖에서 비슷한 경험을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자신이 주인공 블로그에도 하고 싶었던 말을 쓰지 못한 채 숨기고 사는 사람들. 대외활동 중에 누가 들어도 불편한 말을 듣고도 무난히 그 그룹에서 활동하기 위해 내색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말하고자 하는 욕구는 그냥 말한다고 해서 충족되지 않는다. 말을 듣는 사람이 있고, 충분한 효과가 있어야 한다. 말을 하기 전과 후가 같으면 내뱉을 이유가 뭐가. 이런 욕구가 지속해서 불충족 상태에 놓이면, 그냥 그 욕구를 포기해버리고 만다. 이를 두고 누군가는 '학습된 무기력'이라고 설명했던가. 안타깝게도 무기력함은 사회 전반에 널리 있고, 대부분은 부딪히는 대신 자신의 발언권을 포기하고 다른 곳에 눈을 돌렸다.

삶의 전반은 자신의 언어를 찾아 갈고 닦는 과정이다. 그래서 지금 당장 말하지 못하고 할지라도, 언젠고 말할 수 있다. 또 말이 유일한 표현 방법인 것은 아니다. 어떤 이는 글로 자기 생각을 말하고 어떤 이는 그림과 사진으로, 어떤 이는 자신의 악기로, 또 노래로, 춤으로 세상을 말한다.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이 생겼을 때 어떤 곳에서도 말할 수 있다는 당당한 태도는 무기력을 깨고 문제를 움츠러들게 만들 수 있다. 꼭 맹맹 울려야 경종인가, 팽과리처럼 쾅쾅하고 울려도, 북처럼 동동거려도 세상을 바꿀 수 있다면 그만이다. 나는 말 잃은 이들이 시끄러워질 사회를 기다린다. 그 속에서 화음이 만들어질 날을 꿈꾼다.

■ from 편집국

## 사람이 되기 위해서



김다인 편집국장

'사람을 모집합니다  
아무런요, 내년에는 꼭 사람이 될 예정입니다'

최근에 읽은 김경인 시인의 시 한 구절입니다. 제 처지를 그대로 그려놓은 것 같은 시를 보며 필사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저와 같이 학교를 다니고 계신 이대학보 독자분들도 사람이 되기 위해 매일을 살아가시겠죠.

제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고민하고 있을 당시 이대학보에서도 사람을 모집하고 있었습니다. 고민 끝에 언론사가 원하는 사

람이 되기 위해 선택해 학보에 들어왔고, 효율성을 추구하는 시대의 흐름을 거슬러 최대한의 시간을 투입해 기사 하나를 얻는 삶을 택했습니다.

저 역시 학보에 들어올 때 걱정이 많았습니다. 당시 3학년으로 수업을 듣기도 바쁜데 학보 생활까지 병행할 수 있을까 고민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게시판에도 저와 비슷한 고민으로 망설이는 분들도 꽤 계셨습니다. 그렇지만 '할까 말까 할 때는 하지'는 마음으로 전송 버튼을 눌러 취재기자 자리에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그때의 용기로 지금까지 이대학보의 기자로 지내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잠시 멈췄던 작년도, 다시 생기를 되찾고 있는 지금도 이화에는 다양한 이야기들이 끊임없이 쏟아집니다. 그리고 이를 담아내기 위해 약 530일이 넘는 날들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수많은 시간동안 이화의 다양한 사안을 좇으며 달려왔고, 퇴임 기자를 앞둔 시점에서 기자 생활을 되돌아보니 저의 미숙함에 아쉬움이 남기도 합니다.

학보 기자로 사는 게 어땠는지에 대한 물음에 학보에 있던 때 순간이 행복했다는 답변이 돌아온다면 그건 거짓말일지도 모릅니다.

저 역시 매일이 행복하지는 않았습니. 가끔은 평범한 하루를 그리워하며 잠들었고, 때로는 잠들지 못하고 밤을 새우거나 기사를 작성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대학보의 기자로 지낼 수 있어 좋았습니다. 다소 상투적으로 들릴 수 있겠지만, 꽤 괜찮은 시간이었습니다. 치열한 삶을 살아가는 이들과 함께할 수 있었고, 마지막 순간까지 다하는 최선이 무엇인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학생, 동문, 교수님과 행정 직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경비원들과 미화원들까지 이화를 채우는 사람들의 삶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됐습니다. 학보 기자로 살아보지 않았다면 이런 기회 제 인생의 순간들을 채울 수 없었겠죠.

물론 과거의 저처럼 학업과의 병행으로 혹은 다른 문제로 이대학보에 지원하려는 것을 망설이는 분들도 계시길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대학보의 순간에 여러분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저희와 함께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고민하고 오늘을 살며 함께 내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여론광장

## 졸업하고 나서 보니, 아쉬웠던 학부 시절을 돌아보며

신윤주 국제21졸

올여름부터 같이 아르바이트를 한 20학번 후배가 있었다. 일하면서, 너무 반가운 마음에, 마치 다시 학부생이 된 느낌처럼 수강 신청에 대해 먼저 친근하게 이야기를 나눠보았다. 여전히 수강 신청은 힘들고, 듣고 싶은 걸 못 들었다는 것과 코로나로 인해 동기를 못 봐서 학교에 다녀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고민하는 것을 봤다.

나도 사실 같은 고민을 했다. 집안에 막내로서 사실 나는 외국에 대학을 다니고 싶었지만, 지원을 받지 못하는 존재였다. 그래서 명문인 이화를 위해, 열심히 고3 때 입시 준비를 해서 국제학부에 합격했고, 다른 남녀공학 대학들을 선택하지 않은 이유는 수업 시간에 참여할 때도 여학생들을 발표자로 시키는 경우가 드

물다고 했던 옆 학교 선배의 말을 들어서였다. 발표 토론식 수업을 통해 더 학습효과가 크나로서는 이화가 제일 좋은 학교였다.

관심 분야가 많은 나로서, 복수전공을 선택했다. 하지만 그 과정은, 복수전공 학생으로서의 차별과 시기, 질투 등 힘든 고난이 많았다. 근데 어렵게 어찌어찌해서 졸업은 했는데, 다양하게 관심 분야가 많았던 경제 쪽 분야나 경영 쪽 분야는 부전공할 수 있을 만큼 들었지만, 시간과 돈의 한계로 그냥 하지 않고 졸업을 했다.

나는 학부 생활은 두 번 다시 오지 않고, 성인이 되는 과정에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했다. 고3도 중요하지만, 고3에게는 재수나 삼수의 기회가 있지만, 대학은 조금 다른 것 같다. 그래서 지금 후배들이 코로나 시기에 자신이 듣고 싶은 수업, 교수님에게 어필해서 증원해달라는 식으로 절절해야 하는 식의 수

강 신청이 바뀌었으면 좋겠다. 전공필수로 들어야 하는 것 외에도 전공선택을 다른 학부 수업도 인정하는 식으로 폭을 좀 넓혔으면 좋겠다. 정말 사회 나가서는, 하나만 공부해서는 살아남지 못하는 구조이다. 나 또한 따로 회계 공부를 해야 했고, 전공 외에 따로 공부해야 하는 게 정말 더 많았고 따로 돈을 내고 학원에 다니는 힘든 시기가 있었다.

내가 제안하고 싶은 건 1년 학업 수행 계획서를 작성해서, 교수님들도 1년 단위 수업을 준비할 수 있게, 수강 신청 대란이 없고, 듣고 싶은 것 못 듣고 수강 신청 시기에 방황하는 학생들을 좀 더 챙겨주는 이화가 되었으면 좋겠다. "라떼는 말이야"가 아직도 "현재도 똑 같아요. 선배님"이 답변이 아니라 "그때는 정말 힘들었겠어요! 저희는 그렇지 않아요. 다행이네요."라는 답변으로 말이다.

■ 금주의 책



### 메타버스가 만드는 가상경제 시대가 온다

최형욱 지음 / 서울 : 한스미디어 : 한스미디어 / 2021

저자의 정의를 빌리면, 메타버란 '초월하는, 더 높은'의 의미를 가진 '메타 meta'와 '세계, 세상'을 의미하는 '버스 verse'가 결합되어 만들어진 단어로, 디지털로 구현된 가상세계이자 사용자와 상호작용하는 콘텍스트를 가

진 다차원의 시공간이 존재하는 세계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언택트가 일상화되면서 온라인 게임이 아닌 현실세계에서 마주한 메타버스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뜨겁습니다. 1992년 메타버란 단어가 미국의 SF소설에 처음 등장한 이래, 세계경제를 이끌어 가는 혁신 기업들이 메타버스를 선점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 상세하게 들여다볼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흥미롭습니다. 그 과정에서 급격한 기술 변화에 적응하지 못한 채 사용자와의 소통이 끊긴 기업은 결국 도태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저자는 Z세대의 뒤를 잇게 될 C세대의 탄생에 주목합니다. 유례없는 팬데믹으로 인해 가상공간에서 머무는 시간이 현실세계에서 보내는 시간보다 길어진 최초의 세대로, 그들을 둘러싼 모든 물리적 공간이 모두 메타버스화될 수도 있다는 전망을 조심스럽게 내놓습니다. C세대는 메타버스에서 데이터를 직접 생산하고 공유하며 타인과 소통하면서 초연결시대를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중앙도서관 사서 박순진-  
서고위치: 중앙도서관 [2층] 금주의 책/  
3층 일반자료실 303.4833 3월941미

■ Z의 시선

## 나의 일용할, 안온한 식사

현정아 지리교육-17

나에게 식사는 단순히 영양소를 섭취하는 것, 입의 즐거움 그 이상이다. 내게 식사는 내 정체성과 가치관의 일부이다. 1989년 미국의 페미니즘 미술가 바버라 크루거는 작품을 통해 당신의 몸은 전쟁터다, 라고 말했다. 나는 시스템더 여성으로 살아가면서 여성으로서 나의 몸과 신체가 지니는 정치성에 대해서 인식한다. 그와 동시에 나는 비건으로서 나의 몸이 지니는 정치성에 대해서도 생각한다. 나는 햇수로 대략 4년간 비거니즘을 지향했다. 처음에는 머뭇거리지는, 아니 사실 지금도 머뭇거리지는 '저 채식해요'라는 말. 나의 가장 큰 정체성 중 하나이면서도 특별히 밝혀야 할 상황이 없다면 밝히지 않는다. 하지만 사람은 먹을 것을 함께 나누면서 전하는 것이 흔하다 보니 시간이 지나면서 이내 밝히게 된다. 함께 저녁 메뉴를 말하며 저희 같이 이거 먹으러 가요! 라는 말에 저는 채식해서요

라는 말을 흐리게 었었을 때 미처 생각하지 못한 지점이 끼어들어졌을 때 따라오는 당황과 이를 티 내지 않고 자연스럽게 넘기려는 마음이 섞인 어색한 분위기.

채식을 선택하는 데에는 다양한 이유가 있지만 나는 공장식 축산에 반대하고, 동물권에 대해 생각하고, 기후 위기를 막기 위해 채식을 선택했다. 내가 선택한 한 끼의 위 모든 것들을 기반으로 이루어진다. 동물권과 기후 위기에 대한 고민은 내가 이전에 살아온 삶을 기반으로 만들어지고, 동물권과 기후 위기에 대한 고민은 내가 앞으로 살아갈 삶의 기반이 될 것이다. 내 하루 삼시 세끼에는 별거 아니더라도, 내 삶의 시간이 담긴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하는 식사에서는 의도하거나 거창하지 않더라도 정치적인 행동이 된다. 내가 채식을 한다는 것이 그 사람들에게 채식하라는 권유도 아니고, 함께 먹는 사람들이 채식하게 되는 것은 아니지만, 내가 채식하는 것을 보면서 채식인들이 가시화되고, 채식에 대해서 한 번쯤 더 생각해보게 되는 것만으로도 의미

있게 여겨진다.

내 하나의 식사에는 내 삶 전체가 담긴다. 내 일용할 양식을 결정하는 데에는 많은 것들이 고민된다. 이제는 자연스러워진 식품의 원재료 표시를 확인하는 것과 이제는 익숙해진 비건하면 무엇을 먹느냐는 질문들을 지나 결국은 나의 소수성에 관한 생각에 도달한다. 정치적인 수밖에 없는 나의 몸과 삶은 나와 나를 포함한 많은 존재에 대해 생각하게끔 한다. 나 자신에게 추가로 얹어진 소수성의 무게를 담은 식사는 결국 이 무게만큼 더 안온한 식사를 소망하게 된다. 나를 포함한 소수성을 지니는 수많은 사람의 일용할 양식과 삶이 안온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으며 이 글을 마무리한다.

※ 이 글 말미의 소수성과 관련된 언급은 친구의 '비닐봉지, 빨대, 일회용 컵, 새 옷을 포기하기는 쉬웠지만 채식은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 중 하나로 나 자신에게 또 다른 소수성을 얹고 싶지 않은 걸까?'라는 물음에서 시작된 생각임을 밝힙니다.